

장흥군, 5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장흥군이 지역 아동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5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 개원했다. 이번엔 신축한 제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20년 이상 된 보육

시설로 건물노후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 위기까지 갔었다. 그러나 2016년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제계보육

제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개원식 개최
공모 선정 및 국·도비 10억7천만원 신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5억3천5백만원을 확보하면서 신축 사업이 추진됐다. 여기에 국비와 군비 등 5억3천5백만원을 더해 총 10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8월 착공했다. 7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친 신축 건물은 올해 2월 완공됐다. 지난 3월 30일 열린 개원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복실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푸르니보육 지원재단, 어린이집 연합회, 학부모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제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해 모든 재재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했다. 연면적 449.8㎡로 보육실 5개, 조리실, 교사실, 식당, 유희실 등을 갖추었다. 군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김홍필 기자



완도 명품 전복, 산지에서 대도시 직송으로 만나세요

전복어가 돕기 활전복 산지 직송전 롯데백화점서

완도군은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롯데백화점을 통해 완도 명품 전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완도 전복어가 돕기 활전복 산지 직송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모든 지점에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1차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2차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완도군과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1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년 완도군의 우수한 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와 생산지와의 만남의 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전복의 해외수출량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해 전복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중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어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완도전복유통협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1kg당 14마리 전복을 100kg 한정으로 30,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롯데백화점과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저렴한 가격에 전복을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라며 "4월 중에는 이마트 등 다른 대형유통업체들과도 꾸준히 협력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도=김광수 기자

여수반도 행정구역 통합 20년, 기념 사업 기구 설립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이룬 '3려통합' 2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사업 기구가 설립된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통합 20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4월의 첫날 3려 통합 20주년을 맞아 매년 이날을 '여수시민의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의식을 발휘한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기념사업 조례 제정' 및 '사업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지난 1998년 4월 1일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 통합 여수시로 출범했다. 주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3려 통합을 시민들이 만들어 내 기대한 선

택이자 시 발전을 견인해 낸 화합과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매년 4월1일 '시민의날' 지정 검토 기념 조례 제정 및 기념사업 추진 행정청사 통합 등 미래 준비 바차 이어 여수시민들은 3려통합의 위대한 시민 정신을 토대로 2012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남해안 대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시는 통합 여수시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시민의견을 모으는 등 미래 여수의 비전을 그리기 위한 준

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는 지난달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지역 원로, 시 공직자, 시민들 대상으로 통합 여수시 출범 20주년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시민 521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의견을 물었다. 또 여수시 공무원 1847명, 지역 원로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4월 1일을 '여수시민의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고 3려 통합 기념사업 관련 조례제정과 기념사업기구의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 사업기구는 기념사업과 행정청사 통합운영, 화술행사 등 완성된 통합 여수의 미래 비전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중심의 공동체도시로 만들기 위해 여수형 공동체사업 확대시행과 3려통합 주민투표일인 9월 9일에는 '여수형 자치분권박람회'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조사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통합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 주관으로 10일 '통합 여수시 출범 20주년 기념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주철현 시장은 3려통합은 여수시민들의 자치역량과 주인 의식이 만들어 낸 성과이자 새로운 출발이다"며 "통합 여수시 출범 20주년은 통합의 시민 정신을 계승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최고의 친절 배훈 공무원 선정해 수산양식과 김미령 주무관

완도군은 민선6기 동안 민원인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 'Best of Best 친절공무원'으로 수산양식과 김미령 주무관을 선정했다. 군은 베스트 스마일 공무원을 매년 반기별 성과 1명, 읍면 1명씩을 선발해 표창하고 있다. 민선6기 동안 선정된 총 14명을 대상으로 인사, 감사부서의 적격심사, 직원 여론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선정하고 4월 2일 정례조회시 표창장을 수여했다.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김미령 주무관은 "대단한 일을 받게 되어 뜻밖이다"며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더욱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함이라도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을 발굴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도=김광수 기자

'더 큰 희망' 진도군, 청년정책협의체 본격 운영

진도군이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위원 20명을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위촉된 청년위원들은 지역 내 거주하는 18~49세 청년으로 지난 3월초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청년위원들은 다양한 토론 등을 거쳐 지역 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 발굴 및 긍정 정책 제안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진도군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정책 아이디어 제안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



양한 의견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앞으로 2년 동안 하게 된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청년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청년문화, 청년복지, 청년인재육성 분야 등에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